



김시우(CJ대한통운·왼쪽)가 16일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의 와이알레이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소니오픈에서 우승한 뒤 아내 오지현과 함께 우승 트로피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시우, 신혼여행 중 소니오픈 우승

상금 17억...PGA 투어 통산 4승
“아내 오지현 덕에 긴장 풀렸다”

‘새신랑’ 김시우(28)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소니오픈(총상금 790만 달러)에서 짜릿한 역전 우승을 달성했다.

김시우는 16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의 와이알레이 컨트리클럽(파70·7044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8개와 보기 2개로 6언더파 64타를 쳤다.

최종합계 18언더파 262타를 기록한 김시우는 헤이든 버클리(미국)를 1타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2016년 8월 윈덤 챔피언십, 2017년 5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2021년 1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우승한 김시우는 2년 만에 승수를 보태며 투어 통산 4승을 달성했다.

이번 대회 우승 상금은 142만2천 달러(약 17억 5000만원)다.

지난해 12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7승을 거둔 오지현(27)과 결혼한 김시우는 이번 우승으로 경사가 곱졌다.

‘새신부’ 오지현도 이날 대회장을 찾자 김시우의 역전 우승쇼를 함께 지켜봤다.

소니오픈에서 한국 선수가 우승한 것은 2008년 최경주(53) 이후 올해 김시우가 15년 만이다.

2021년 대회에서는 교포 선수 케빈 나(미국)가 정상에 오른 바 있다.

김시우는 3라운드까지 선두에 3타 뒤진 공동 5위였지만 1~3번 홀에서 3연속 버디를 낚고 선두 경쟁에 뛰어들었다.

김시우와 버클리와 치열한 선두 다툼을 벌였다. 먼저 버클리가 16번 홀(파4)에서 약 4.8m 거리의 버디 퍼트를 넣고 1타 차 단독 선두로 달아나자, 앞 조에서 경기한 김시우가 곧바로 17번 홀(파

3)에서 칩인 버디에 성공하며 다시 공동 1위로 추격했다.

버클리가 17번 홀을 파로 마치면서 남은 18번 홀(파5)에서 승부가 갈리게 됐다.

먼저 경기한 김시우는 두 번째 샷을 그린에 올렸고 약 12.5m 거리에서 시도한 이글 퍼트는 살짝 왼쪽으로 향했지만 홀 30cm 옆에 붙어 1타를 줄였다.

챔피언 조였던 버클리는 두 번째 샷이 그린 주위 러프로 향했고, 세 번째 샷으로 공을 그린 위로 보냈지만 남은 거리가 약 3.6m 정도로 만만치 않았다.

결국 버클리의 버디 퍼트가 살짝 빗나가며 김시우의 우승이 확정됐다.

통산 4승의 김시우는 8승의 최경주 다음으로 ‘한국 선수 PGA 투어 최다승’ 부문 2위를 지켰다.

양용은과 배상문, 임성재, 이경훈, 김주형이 2승씩 따냈다. /연합뉴스

손흥민, 마스크 벗고 풀타임 ... 공격 포인트는 못 올려

토트넘, 아스널에 0-2 완패

손흥민(31)이 안면 부상 이후 처음으로 보호대 없이 풀타임을 소화했지만 토트넘은 ‘선두’ 아스널과 ‘복련던 터비’에서 완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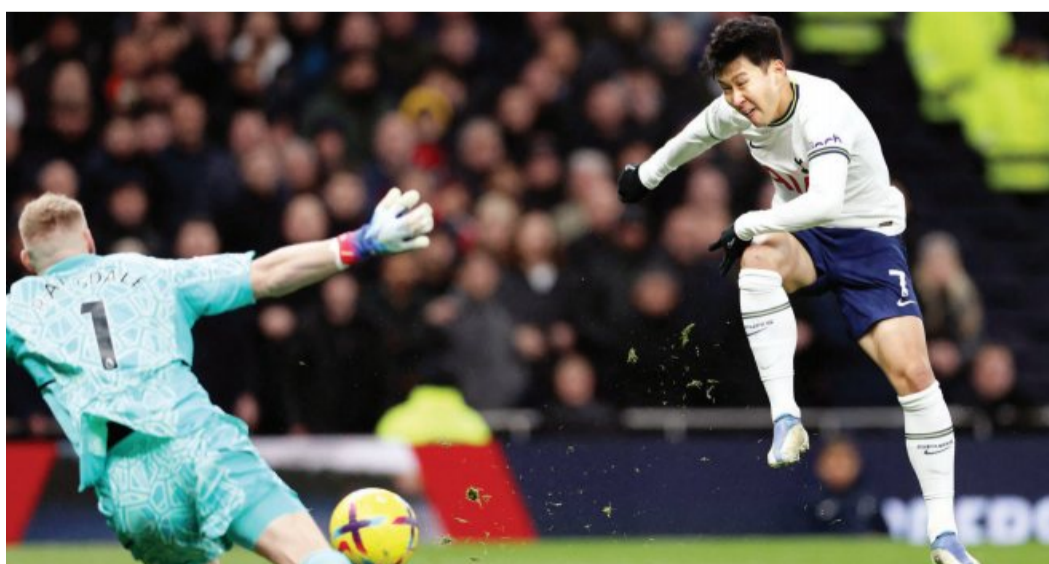
토트넘은 16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홉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2023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아스널과 20라운드 홈 경기에서 0-2로 졌다.

10승 3무 6패가 된 토트넘(승점 33)은 5위에 머물렀는데,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행 티켓을 받는 4위와는 격차가 더 벌어졌다.

토트넘은 월드컵 휴식기 후 첫 경기인 브렌트퍼드전에서 2-2로 무승부를 거둔 후, 새해 첫날 아스널 빌라도 0-2로 완패했다.

직전 경기에서 크리스털 팰리스를 4-0으로 대파하며 분위기를 반전하는 듯했지만, 복련던 터비 완패로 연습에는 실패했다.

반면 아스널은 리그 선두를 잡았다. 15승 2무 1패로 승점 47을 쌓아 2위 맨체스터 시티(승점 39)와 승점 차도 8로 벌렸다.



영국 런던 토트넘 홉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2023시즌 프리미어리그 20라운드 아스널전에서 토트넘 홉스퍼 손흥민(오른쪽)의 슈팅을 아스널의 골키퍼 에런 램스데일이 막아내고 있다. /연합뉴스

안면 보호용 마스크를 벗고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왼쪽 윙 포워드로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했지만 팀 패배를 막진 못했다.

지난해 11월 마르세유(프랑스)와 UCL 경기 중

안와 골절상을 당한 손흥민은 이날 카타르 월드컵부터 줄곧 착용해온 보호대를 처음으로 벗고 나서 그라운드를 누볐지만, 공격포인트를 작성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1부 팀들 ‘도장깨기’ 각오로 도전”

광주FC 치앙라이 캠프 - 주장 안영규

지난해 수비수로 K리그2 MVP
“올해는 도전자 ... 더 강해져야”

수비수, 나이 그리고 광주FC. 편견의 틀을 깨고 ‘우승 주장’이자 K리그2 MVP가 된 안영규(사진)가 2023시즌에도 광주로 전면이 선다.

2022시즌 광주의 우승을 예상한 이는 많지 않았다. K리그 미디어 데이에서도 광주를 ‘우승후보’로 꼽은 팀은 없었다.

주장으로 미디어 데이에 참석했던 안영규는 “작년에 우리는 우승 후보로 거론된 팀이 아니었다. 우리가 다른 팀에게 이렇게 비쳐진다는 생각에 미디어 데이 끝나고 내심 화가 많이 났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되나 보자 이를 갖고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시즌 마지막 날 광주는 K리그2 최다승(25승)·최다승점(86점)을 잡아치우며 압도적인 1위에 올랐다.

안영규 개인으로도 놀라운 반전의 시즌이었다. 안영규는 지난 시즌 광주로 돌아와 2018년에 이어 다시 또 주장 역할을 맡았다. 금호고 출신의 11년 차 베테랑을 향해 사람들은 ‘나이’를 이야기했다.

안영규는 “성남에서 계약 끝나고 나올 때 나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다. 충분히 이 나이에 잘 하고 있는 선수도 많은데 나도 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감사하게 감독님께서 불러주셨고 광주였기 때문에 흔쾌히 합류할 수 있었다. 한 시즌 부상 없이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었고, 감독님도 나를 더 발전시켜 주셨다. 모든 게 잘 맞아서 잘 할 수 있었다”며 나이를 잊은 활약을 이야기했다.

안영규는 ‘수비의 핵’으로 자리하면서 팀의 최소실점(32점)을 이끌었고, 광주는 탄탄한 수비로 우승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공로를 인정 받아 안영규는 K리그2 시상식에서 가장 빛나는 선수가 됐다.

안영규는 “축구하면서 한번도 상을 못 탔다. 잘 한다면 베스트 11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준비했다. 나도 팀원들도 열심히 하면서 좋은 성적이 났기 때문에 베스트 11은 조금 의식했는데, 다른 후보들이 워낙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줘서 MVP까지는 기대 못했다”며 “수비수로는 정말 받기 힘든 상이라고 생각했다. 1부에서 예전에 수비수로 MVP를 받은 홍정호 선수가 친구이기도 한데 수비수로서 자랑스러웠고 부럽기도 했었다. 축구하면서 첫 상이자 너무 큰 상을 받았다. 또래 친구들이나 아직 프로에서 뛰고 있는 선배들이 축하한다고 연락을 많이 했다. 이 나이에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생각했는지 자기 일처럼 축하를 많이 해줬다”고 웃음을 보였다.

또 “감독님이 수비 조직력 준비를 잘 하셨고, 갖춰진 팀을 만드셔서 수비는 걱정 안 했다. 동계훈련을 하면서 수비 조직력이 점점 좋아졌고, 라운드를 지나면서 눈빛으로만으로도 서로 알게 됐다. 최소 실점이 수비 선수들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니다. 우리는 공수를 따로 하는 팀이 아니고 11명 선수가 다 같이 조직력으로 하는 팀이다. 앞에서 공격 선수들이 수비들을 편하게 해줬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 공격 선수들에게도 감사하다”며 “주장으로로서도 선수들이 잘 이해해주고, 친구(이)들이 그렇게 고참 선수들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따라와줬다”고 함께 2022시즌을 달린 동료들에게 공을 돌렸다.

틀을 깨고 제 2의 전성기를 맞은 안영규가 이번에는 1부라는 벽을 깨기 위해 나선다.

안영규는 “지난 시즌 광주는 강했다. 하지만 그건 지난 해이고 올해는 도전자 입장이다. 작년보다는 모든 부분에서 발전·성장해야 하고 강해져야 한다. 선수들한테도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부분 이야기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며 “광주의 올 시즌은 ‘도장깨기’다. 1부 팀들이 아직 경기를 해보지 않아 광주를 약타려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팀들을 한 팀, 한 팀 만나서 ‘도장깨기’한다는 마음으로 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태국 치앙라이=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민선, 동계유대회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1000m 금메달

‘신(新) 빙속여제’ 김민선(24·고려대)이 제31회 동계세계대회경기대회(동계유니버시아드)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1000m에서 트랙 레코드(경기장 최고 기록)를 세우며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 첫 금메달이다.

김민선은 16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레이크 플라시드 올림픽 센터 스피드스케이팅 오벌에서 1분20초46의 기록으로 35명의 출전 선수 중 1위에 올랐다.

마지막 조인 18조 아웃코스에서 스타트를 끊은 김민선은 첫 200m를 전체 최고 기록인 18초52에 통과했고, 이후 모든 구간별 기록을 1위로 주파하며 여유 있게 결승선을 끊었다.

출전 선수 중 1분 20초대 기록을 세운 선수는 김민선뿐이다.

그는 야외 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른 탓에 개인 최고 기록(1분13초790)보다 크게 떨어지는 기록을 세웠으나 대학생들이 겨루는 유니버시아드 무대에선 적수를 찾기 어려웠다.

김민선은 올 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시리즈 여자 500m 종목에 싹쓸이한 단거리 세계 최고의 선수다.

그는 주 종목이 아닌 여자 1000m에서도 나쁘지 않은 성적을 내고 있다. 지난해 11월 월드컵 1차 대회 여자 1000m에서 은메달을 차지하는 등 해당 종목 세계랭킹 5위를 달리고 있다.

김민선은 20일에 열리는 주 종목 여자 500m에서 2관왕을 노린다.

이번 같은 종목에 출전한 박재은(한국체대)은 1분21초85의 성적으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편 같은 날 레이크플라시드 올림픽 센터 1980링크에서 열린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선 이시형(고려대)이 기술점수(TES) 71.98점, 예술점수(PCS) 72.60점, 감점 1점,



김민선(24·고려대)이 16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레이크플라시드 올림픽 센터에서 열린 제31회 동계유니버시아드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1000m에서 트랙 레코드를 세우며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 첫 금메달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합계 143.58점을 받았다.

그는 쇼트프로그램 점수(75.17점)를 합한 최종 총점 218.75점으로 전체 6위를 차지했다.

같은 종목에 출전한 차영연(고려대)은 최종 총점 208.03점으로 7위에 올랐다. /연합뉴스